

광주·전남 공공청사 일회용컵 사용 4명당 1개꼴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에도 광주시청 72%·목포시청 52% 사용

광주·전남 시청 이상급의 공공청사 출입자 4명당 1개 이상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등이 마련돼 있음에도 여전히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부터 24일 광주시청, 전남도청, 광양시청, 목포시청, 여수시청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 출입자 총 6444명 중 27.2%(1757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가 동시에 지자체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것이다.

조사는 점심시간 청사출입구를 통해 일회용 컵을 들고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청의 경우 점심시간 총 출입자 1729명 중 텀블러 사용자는 2%(35명)에 불과했다. 이중 일회용 컵 사용자 수는 257명(14.9%)이었다.

같은 시간 광주시청 1층 카페의 이용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카페 음료주문 전체 253건 중 184건(72.7%)이 일회용 컵으로 제공됐으며 텀블러 이용은 5건(1.9%)에 불과했다.

전남지역 시청 이상급의 공공청사의 일회용품 사용률은 광주보다 더 높았다.

전남과 광양, 목포, 여수환경운동연합이 같은 기간 실시한 일회용 컵 사용 조사 결과 목포시청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품 사용률을 보였다.

일회용 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목포시청으로 출입자 2명 중 1명 이상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청은 총 인원 2004명 중 524명(26.1%)이, 광양시청은 872명 중 300명(34.4%)이, 목포시청은 514명 중 269명(52.3%)이, 여수시청은 1370명 중 407명(29.7%)이 일회용 컵을 들고 출입했다.

개인 텀블러나 공유컵 사용은 전남도청 15명, 광양시청 16명, 목포시청 2명, 여수시청 1명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별도 별첨규정이 없어 공공연하게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남도와 광양, 목포, 여수 지자체도 모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혹은 제한 조치가 있지만 유명무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광주시청 일회용컵 사용실태 조사에 나선 지난 22일 광주시청 1층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가 제공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실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일회용 규제 정책 완화가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단체는 "일회용품은 대부분 석유화학제품으로

생과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후위기 큰 영향을 끼친다"며 "올해 광주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공공에서부터 인식변화와 실천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기아 캠프필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행사

오늘 필드 구장서 캠페인...페트병 야구게임·키링 증정

환경부가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행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KIA 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캠페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야구장에서는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애구재단 이사장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키링)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로고젝터)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이날 이후에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속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에만 적용되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귀중한 순환자원인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닭발' 가지치기 개선...가로수 AI 온라인 지도화

광주환경운동연, 시민조사단 모집 기본교육 후 가로수 상태 조사활동

광주도심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지도가 제작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의 가로수를 AI기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 지도화하기 위해 31일까지 시민조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조사단은 가로수 조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등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후 조사활동을 통해 가로수의 상태를 취합해 온라인 상에 지도화하게 된다. AI 기반 가로수 트리맵을 구축해 주민 누구나 광주의 가로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일명 '닭발', '주먹손' 등 형태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막고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과 기후 조절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8일 동네를 운전해 집에 돌아가던 중 북구삼각동 인근 가로수의 모습을 봤다. 며칠 전만 해도 푸릇푸릇했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건너편 산책로가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은 낡고도 건너편 대형 건물 바로 앞 가로수들은 나무의 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잘라내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메타세콰이어 거리의 한쪽 가로수(왼쪽)가 지난 28일 짧게 가지치기 돼 있다. (독자 제공)

버렸다"며 "나무의 생육에도 좋지 않은데다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이 돼 주는 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이산화탄소 억제, 산소 배출 등 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먹손'과 같은 가로수 관리의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광주 가로수 가지치기 조사' 모니터링 조사결과(광주일보 4월 10일자 12면) 광주도심 23개 지점, 41그루의 가로수에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반다비 카페' 열었어요

남구, 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

광주시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가 문을 열었다. 남구는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반다비 카페'가 지난 25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다비 카페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반다비 체육센터 2층에 마련됐다.

카페는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들이 근무한다.

남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뛰어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 기금 300만원을 투입해 카페를 조성했다.

카페 운영은 공모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광주시 장애인권익협회(협회)가 맡는다.

협회는 카페 순이익금으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장애인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 서구 인권작품 공모전'

시화·포스터·캘리그래피 등

광주시 서구는 사람 중심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서구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생활 속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시화 ▲포스터 ▲캘리그래피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지역·연령 등 제한 없이 개인 또는 2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9월 10일까지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인권지향성, 창의성,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눠 심사한다.

대상 1편, 최우수상 6편, 우수상 12편 등 총 19편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서구청장 상장과 대상 80만원 등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0월 중 광주 서구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향후 인권문화제 개최 시 인권작품 전시회,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고 일상에서부터 인권존중과 인권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지은 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